

# 목포시, 해상 풍력산업 중심 미래 성장동력 확보

### 3000억 투자 유치 이어 신항 1단계 배후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투자촉진 통해 융복합산업화 플랫폼·물류 통합관제시스템 등 구축 나서

목포시가 신항만에 3000억원 규모 해상풍력 사업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올해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다지고 있다.

목포시는 신항 1단계 배후단지 약 12만6000평(41만6528㎡)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마치고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목포시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민간투자 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에는 35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상풍력 유지 관리와 물류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항만물류 기반시

설과 발전단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일대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운영 등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관제탑 역할을 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이 핵심 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플랫폼의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목포시는 덴마크 터빈(원동기) 제조사 '베스타스', 해운사 '머스크'가 목포 신항만에 30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기도 했다.

베스타스는 협약에 따라 연간 150대 이상 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목포 신항에 설립한다. 이 시설은 아시아와 북미 수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수출 판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장은 내년 초 착공해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

목포 신항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점 항만으로 떠오르고 있다. 목포 신항 일대는 해상풍력 지원항만의 필수 요건



3000억원 규모 해상풍력 사업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올해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해상풍력산업 배후단지 목포 신항만 전경. <목포시 제공>

인 지내력(지반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는 정도)을 갖췄다. 49만5867㎡(15만평)에 달하는 배후단지도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시는 신항에 해상풍력 전용 철재 부두(3~5만급 1선석)와 2단계 배후단지(23만8000㎡) 추가 건설을 위한 건의 활동에 힘쓰고 있다.

'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과 '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이를 반영해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국고 투입을 통해 핵심 시설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엔지니어링(선도)기업을 유치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풍력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든든한 신산업"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차질없이 조성해 시장을 선도하고,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앞장섬과 동시에 명실공히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농산물 가격안정제 조속히 도입해야”

신안군의회 결의문 채택...농가 경영난 해소



2024. 6. 10.(월)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 최준욱 의원 등이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신안군의회 제공>

신안군의회가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신안군의회는 지난 10일 결의문을 통해 "최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불필요한 정책을 멈추고 농산물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최준욱 의원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이중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무안 청소년들, 환경 교육 방과후 교실

목포대와 11월까지 진행...환경 보전 중요성 등



무안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가 함께 한 '환경 교실'에서 청소년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 청소년 20여 명이 목포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환경 교실' 교육을 받는다.

무안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 청소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목포대학교와 함께하는 환경 교실'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환경 활동과 교육을 펼친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총 7차례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으로 수업을 꾸릴 계획이다.

참여 학생들은 주말 등을 활용에 환경을 다루는 놀이를 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무안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하천을 맑게 하는 'EM홍콩던지기' 등에도 참여했다.

김기영 무안군 주민생활과장은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영광 흥농법성 하수관로 정비 공기 단축 '기대'

국비 22억6000만원 추가 확보...환경부 방문 등 활동 성과

영광군이 흥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공기 단축이 기대된다.

영광군은 흥농법성 하수도사업 2건 추진에 필요한 국비 2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156억원 등 총 23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9건의 하수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꾸준한 환경부를 방문해 국비 추가 배정 활동을 펼친 결과다.

구체적인 확보 예산은 '흥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6000만원',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0억원'이다.

통상 국비를 10억원가량 추가로 확보하면 공기를 2개월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광군은 당초 2026년 말보다 5개월 앞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2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영광읍 계송리 등 9개리, 흥농읍 상하리 등 2개리, 군서면 남죽리, 법성면 대덕리 4개리를 포함해

총 16개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는 공사다.

오는 2026년까지 오수관로 42.42km, 배수설비 892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정성 영광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지방교부세 감소와 군수 권위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일선 현장에선 묵묵히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정환 기자 kcw@kwangju.co.kr

## 퍼플섬 곳곳 '퍼플 쉼터'

신안군, 안좌면에 의자 25개 기증

'퍼플섬'으로 알려진 신안 안좌도에 '보랏빛 의자'가 잇달아 설치돼 주민·방문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0일 김성환 안좌면 주민자치위원장과 각 사회단체장 등 23명이 '보랏색 1004섬 기념 의자'를 안좌면에 기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전한 보랏빛 의자 25개는 안좌도의 주요 관광지인 선착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다. 안좌면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할 예정이다.

'1004섬 기념 의자 기증 릴레이'는 지난해 7월 시작했다. 신안지역 자연과 문화의 장점을 살리고 공공장소에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안좌면 음동리 '김항기 고택' 앞에 설치된 '1004섬 기념 의자'에서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 농가에 쌓아둔 퇴비서 악취 해남군, 불량퇴비 전수조사

해남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살포되고 있는 불량퇴비에 대해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쌓아둔 퇴비는 악취 등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퇴비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정성분 함량에 대해 검사를 마친 후 포장 상태로 유통돼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유통될 경우 생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적치하고 구입한 농가에서는 즉시 농지에 살포해야 한다.

군은 일부 농가에서 퇴비 비용 절감을 위해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를 업체 또는 축사에서 구입해 농지에 무단으로 3~4개월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및 적정함량이 부족한 퇴비에 대해서는 운반업체에 회수명령 조치하고, 생산자가 불분명한 퇴비업체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비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휴전 71주년...평화를 노래하다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25일 시민문화체육센터서 연주회

목포시립합창단과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한국전쟁 정전 71년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목포시립문화체육센터에서 영혼으로 빛나는 메아리라는 주제로 '모차르트 레퀴엠'을 연주한다.

이번 연주회는 목포시립 양대 합창단(성인 및 소년소녀)을 비롯해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카메라타전남, 목포시립무용단 등 150여 명의 출연진으로 구성된 역대급 규모의 무대로 꾸며질 계획이다.

공연은 유달산에 오르는 한 소녀와 노인의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초창·평화·진혼을 키워드(주제어)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대한 존경과 헌정, 위대한 헌신에 대한 회상·평화의 메아리 등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특히 과거의 희생을 장대한 진혼의식으로 이 땅을 지켜 온 모든 영혼을 위로하는 레퀴엠 공연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목포시립무용단의 퍼포먼스가 더해져 숙연해져야 할 정전의 의미를 더욱 되새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의 청아하고 맑은 소리와 성인합창단의 하모니는 다스림 예방도시 목포의 예술적 가치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립합창단 SNS(사회관계망서비스)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 총감독을 맡은 목포시립합창단 김선희 지휘자는 "이번 공연은 현대인들에게 잊혀져 가는 역사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예술이라는 도구로 가슴 한편에 머물러 있는 애국이라는 의미를 상기시키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